

격주 4일 근무로 달라진 일상...광양제철소, 행복한 일터 조성

격주마다 생기는 3일 연휴에 리프레시·자기계발 기회로 한층 더 유연해진 근무여건 속에서 업무 몰입도 향상 기여

“연휴가 늘어나면서 평소 애보고 싶었던 배드민턴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한 주는 4일만 근무하면 된다는 생각에 오히려 업무 몰입도가 높아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최근 광양제철소(소장 이동렬)가 국내 철강업계 최초로 격주 4일 근무제를 도입한지 31일째 되는 날이다. 업계 최초로 시행한 만큼 파격적이라는 평가가 받들 정도로 세간의 관심을 받은 격주 4일제가 시행 한 달째로 접어들면서 직원들의 일상도 변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포스코는 ‘일과 삶의 균형’ 확대와 유연한 근무제도에 대한 니즈를 충족시켜 직원들에게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지난달 22일부터 ‘격주 주 4일제형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한 바 있다. 직원들이 2주간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1시간씩 더 근무하여 평균 주 40시간내 근로시간만 유지하면 격주

금요일마다 쉴 수 있는 것이 핵심이다.
 광양제철소가 이 같은 전사 지침에 따라 전 상주 직원을 대상으로 격주 4일제를 시행한 이후 직원들 사이에서 실제로 업무 몰입도와 생산성이 증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광양제철소 EIC기술부에서 근무중인 한 2년차 사원은 “쉬는 금요일이 있는 주에는 목요일까지 모든 일을 다 마치기 위해 근무시간 중 업무 몰입도가 크게 늘었다”며 “스스로 일을 더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끊임없이 고민하게 되는 것도 달라진 점”이라고 강조했다.
 근무 25년차인 안전방재그룹의 한 과장은 “평일에 개인 용무를 봐야 할 경우 연차 사용 없이 휴무 금요일을 활용해 개인적인 용무를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이 좋다”며 “3일 연휴가 생긴다는 생각에 일하면서도 오히려 더 보람차게 일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격주 4일제 시행으로 직원들은 2주에 한

번씩, 길게는 목요일 저녁부터 일요일까지 연속으로 휴가를 가거나 클라이밍, 배드민턴, 수영 등 본인의 역량 향상을 위한 자기계발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광양제철소 인사노무그룹의 한 3년차 사원은 “주말이 사실상 3일로 늘어나면서 평소 애보고 싶었던 배드민턴을 배우기 시작했다”며 “나날이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직원들이 늘어난 휴무일을 활용해 지역 내에서 다양한 소모임 활동도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매주 휴일마다 직원끼리 지역 맛집이나 카페를 탐방하는 소모임도 시작했다. 광양제철소 행정실 외그룹의 한 직원은 “동기들 모두 주말마다 개인 일정이 있어 만나는 것이 쉽지 않았다”며 “대신, 늘금(늘는 금요일)이 있는 주말마다 동기 모임을 만들었다”고 전했다.
 광양제철소는 격주 4일제 시행에 따른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통근 정책에도 변화를 줬다. 먼저, 격주 4일제를 이용하는 상주 직원들을 대상으로 평일에 1시간씩 더 근무하는 직원들을 위해 1시간 늦게 출발하는 퇴근



버스 10대를 증차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과 포항으로 가는 주말버스와 여수공항 및 순천역을 오가는 직원을 셔틀차량은 기존에 매주 금요일 퇴근 시간 이후에만 운행하던 일정에 더해 쉬는 금요일이 있는 주의 경우, 목요일 저녁에도 추가 운행되고 있다. 격주 4일제 도입에 따라 구내식당 석식 운영시간도 연장됐으며, 제철소 차량 5

부제 운영 시간을 새롭게 바꾼 근무시간에 맞추어 적용하는 등 직원들이 새로운 제도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다.
 광양제철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격주 4일 근무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조직 구성원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전남개발공사, '건설현장 대금체불 원천차단 클린페이' 도입 운영

전남 공공기관 최초 '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 도입 업무협약 체결



전남개발공사(사장 장종모)가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금 체불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투명한 자금 집행프로세스를 구축한다.
 공사는 최근 공사 8층 대회의실에서 신한은행, 교보증권, ㈜페이컴즈와 함께 차세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인 '클린페이'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공사에서는 그동안 건설현장의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노무비구분관리제', '하도급 지급이 시스템 운영' 등 꾸준히 노력해왔다.
 그러나 시공사의 부도 등 부실사태(채권가압류)가 발생할 경우 대금지급이 어렵게 되어, 법원공탁으로만 처리를 할 수 있음에 따라 일부 현장에서는 대금지행 지연으로 공정판리에 차질을 빚게 되는 상황이 발생 할 수 있었다.

이러한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공사에서는 새로운 체불방지 시스템인 '클린페이'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클린페이'는 신탁방식이 적용된 시스템으로 공사계약 체결시 시공사와 근로자등에 지급할 공사비 및 노무비를 신탁재산으로 관리하여 특정업체의 부실이 발생해 기성에 대한 가압류 절차가 들어오더라도 신탁법에 따라 대금의 직접지급을 보장함으로써 체불 민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차세대 대금지급 시스템이다.
 특히, 금리 인상과 원자재 가격 상승, 자금경색 심화 현상 지속으로 영세한 지역 업체들의 공사대금과 근로자의 임금이 체불될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이번 클린페이 도입은 건설현장의 체불근절을 위한 선제적 제도마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따라서 장종모 사장이 취임 이후부터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투명·상생중심의 ESG경영' 실천을 위해 지난해부터 수의계약 총량제, 지역업체 현장확인제도, 건설용역 심사과정 온라인생존계 등 사전 적격검토부터 대금지급보장까지 계약행정의 효율성과 신뢰도를 높임으로서, 공기업으로서 모범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에 앞장설 것으로 기대된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광주형 특화 골목상권 육성위해 활성화전략 수립

전략·공동마케팅 1억1000만원 지원...오늘부터 3월 4일 공모

광주시가 골목상권을 육성하기 위해 활성화 전략 수립·공동마케팅 등을 지원한다.
 광주시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대표 상권을 조성하기 위해 '2024년 우수 상권 집중육성 사업' 대상을 공개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광주시는 특화기반을 갖춘 총 2개 상권을 선정해 최대 1억1000만원을 투입한다.
 또 골목상권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상권별 중장기 활성화 전략을 수립하고 이야기와 특화상품 개발, 디지털전환사업 상담,

공동마케팅, 지역형 축제(이벤트) 등을 지원한다.
 광주시는 상권의 정체성을 구축해 광주만의 특색을 갖춘 대표 상권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골목상권 등 3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돼 있어야 하며 대표자가 선출된 상인 단체이다.
 신청 접수는 26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이며 자치구를 통해 광주경제진흥원상생일자리재단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슬비기자

전남도, 전국소년·장애학생 체전 자원봉사 1200명 모집

전남도가 오는 5월 열리는 2024년 제53회 전국소년체전과 제18회 전국장애학생체전의 성공 개최를 위해 자원봉사자 1200여 명을 3월 15일까지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광주·전남 거주자 중 만 18세 이상(2006년 5월 1일 이전 출생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전국소년(장애학생) 체전 자원봉사 누리집(jn1365.or.kr)으로 신청하거나 활동지역 시·군 자원봉사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선발된 자원봉사자는 역할과 자제 등 기본 소양교육 후 배치될 예정이다. 주요 활동은 종합상황실 지원, 개최식 지원, 홍보 지원, 의료 지원, 경기 운영 지원, 경기장 안내소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펼치게 된다.
 참여한 자원봉사자에게는 자원봉사활동 시간 인정, 유니폼, 기념품, 활동 실비, 우수 봉사자 포상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김승권기자

한정승인 공고
 사건번호 : 광주가정법원 2024 나단 34 상속한정승인
 사망자 : 망 문갑주 (460323-1650216)
 최후주소 : 전남 영암군 영암읍 무덕정길 64(장암리)
 위 망 문갑주에 대하여 상속인은 민법제 1028조에 따라 한정승인 하였으므로 민법제 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신고기한(공고일로부터 2개월)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2024년 2월 26일
 공고인 : 손복순, 문숙희, 문경국, 문경하
 주소 : 광주 광산구 사암로215번길 16, 102동 1501호(우산동, 어등하이빌)
 한정승인수리일 : 2024년 2월 20일
 공고기간 : 2024. 2. 26 ~ 2024. 4. 26

www.nhis.or.kr

“건강보험, 월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6년 현재 국민은 한 세대당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9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으며,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에 달하는 금액 혜택을 받았습니다.

가구당 월평균 18만원 혜택

월보험료 납부 104,062원 / 건강보험 혜택 183,961원 / 1.77배

2016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분위	고소득층	4분위	3분위	2분위	저소득층
보험료	240,833원	125,531원	79,147원	48,103원	26,697원
급여비	1.1배	1.7배	2.1배	2.7배	5.3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 세무기장·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박우열
 세무회계사무소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

한국연립재단
 퇴근시간 엄수, 행복시간 준수!

임은 근무 시간에 야근하는 퇴근 이후에 생활 속의 위기를 살린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 행복해합니다.

국민이여! 남에게서 지니면 슬로입니다.